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9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오픈AI발 악재에 흔들린 증시

-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나스닥 -0.9%
- 오픈AI발 악재: ① 성장성 우려 ② 소송 리스크
- 경제지표 혼조 및 유가 100달러

Summary

미국 증시는는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첫 뚜렷한 조정을 겪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5%로 소폭 하락에 그쳤으나, S&P500 지수는 -0.49%,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 지수는 -0.90% 밀리며 조정 폭이 확대됨. 조정의 촉매는 오픈AI 내부 성장성 둔화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을 지적한 WSJ 보도였음.

오픈AI발 악재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설정했던 2025~2026 회계연도 매출 목표치와 신규 유료 사용자(챗GPT+ 등) 유입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는 혁신적인 모델 출시 주기가 길어지고, 경쟁 강도가 커지면서 초기 폭발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지적. 또한 모델 학습과 컴퓨팅 파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상쇄할 기업용(B2B) 매출 성장이 더딘 점은 향후 기업공개(IPO) 경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오픈AI 컨셉 주식'으로 분류되는 소프트뱅크, 코어위브, 오라클, AMD 등의 주가가 약세를 보임. 이번 사태는 25년 9월 이후 제기됐던 'AI 투자 지출 딜레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 투자가 둔화되면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반대로 투자가 증가하면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구조. 오픈AI는 반박 보도를 통해 "회사의 모든 사업 부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부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힘.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법적 소송'도 부담이 될 전망. 소송의 핵심 쟁점은 ① 비영리 원칙 위반(Founding Agreement) ②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유착 ③ AGI(인공일반지능) 정의 논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번 재판은 과거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인앱 결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가 맡음. 또한 9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하지만, 최종 판결과 배상액 규모 등은 로저스 판사가 결정하는 권고적 배심원 재판 형태로 진행될 예정. 일론 머스크 CEO는 첫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미국 자선 기부의 근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함. 재판은 약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5월 중순 이후 배심원 평결 및 판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

UAE, OPEC+ 전격 탈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WTI 원유 선물은 5%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이 다시 확대됨. 미국자동차협회(AA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18달러로

상승하여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이 날 1.6% 상승은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UAE가 오는 5월 1일부터 글로벌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및 OPEC+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이는 지난 60년 간 이어져 온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카르텔 체제의 균열을 의미하며, 유가와 국제 정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UAE는 이번 결정을 두고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 UAE 국영 석유 회사는 이미 일부 장기 고객들에게 페르시아만 외곽 푸자이라 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원유를 인수할 수 있다고 통보. UAE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유 생산 능력을 하루 500만 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나, OPEC+의 감산 쿼터에 묶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컸음. UAE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탈퇴 결정과 관련해 사우디와의 논의는 없었고,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며,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순전히 정책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함.

유럽,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유럽중앙은행(ECB)의 월간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4%로, 2월의 2.5%에서 큰 폭으로 상승함. 향후 3년(2.5%→3.0%), 5년(2.3%→2.4%) 모두 이전보다 상승하며 ECB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서 더욱 멀어진 모습을 보임. ECB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힘. 이같은 결과에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더 가파르게 오르며 '베어 플래트닝(Bear flattening/수익률 곡선 평탄화)'이 나타남. 시장에서는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69bp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한편 소비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국내총생산이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예상치인 0.9% 감소보다 더 악화된 수치. 또한, 1년 후 실업률 전망치는 10.8%에서 11.3%로 상승함.

한편, 민간 고용을 나타내는 ADP 주간 고용은 주당 3.9만 명 증가로 이전치(4.0만 명)보다 소폭 둔화됐으나, 여전히 완만한 고용 확장을 시사함. 주택시장에서는 S&P/코털리티 케이스-실러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0.9% 상승에 그치며 예상(1.1%)을 하회,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 미국 주택시장의 냉각이 재확인됨. 반면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2.8로 전월(92.2)과 예상(89)을 상회해 고물가·고금리·전쟁 부담에도 소비 심리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우 -0.05%, 나스닥 -0.90%, S&P500 -0.49%, 러셀2000 -0.40%)

특징종목

오픈AI 악재에 테크(반도체) 약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픈AI가 내부 매출 및 사용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미래 컴퓨팅 수요를 충족할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1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멈추고 이틀 연속 하락하였고, 브로드컴(-4.4%), 마이크론(-3.9%), 오라클(-4.1%), AMD(-3.4%), 코어위브(-5.8%)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임. 아시아 증시에서 소프트뱅크는 10% 가까이 하락해 끝남.

실적 발표에 엇갈린 주가

소재 섹터(-1.1%)는 귀금속 가격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뉴코(+4.7%)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보임. 코카콜라(+3.9%)는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필수소비재 섹터(+1.0%)의 상승을 견인함. 센틴(+14%)의 1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보험료 인상으로 회원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2026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반면 셔윈-윌리엄스(-3.5%)는 실적 발표 후 하락함. 펜테어(-10.20%)는 S&P 500 구성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산업재 섹터(-0.9%)를 약세를 견인함. 젯블루 항공(-6.2%)은 예상보다 큰 1분기 손실을 기록했고 유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비수기 여행 기간 동안 운항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밝힘. UPS(-4%)는 아마존 사업부의 약 절반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포함한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힘.

ETF 동향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U.S. 원유(USO, +3.6%)와 에너지(XLE, +1.6%) 섹터가 강세를 보임. 반면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 약세에 글로벌 X 은 채굴업자(SIL, -4.9%), 금 채굴업자(GDX, -4.4%) 등이 약세를 보임. 반도체 기업 주가 약세 영향으로 VanEck 반도체(SMH, -3.0%)가 약세를 보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상승(베어 플래트닝)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35로 일중 0.8% 상승하며 한 달 내 최고 수준을 재확인함. 중동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며 연준·ECB·BOE 회의를 앞두고 각국 금리가 동반 상향 압력을 받는 모습임. 영국 10년물은 5.01로 3.3% 급등, 독일 10년물도 3.07로 3.5% 오르며 2011년 이후 고점을 재추격하고 있음. 한국 10년물은 3.86로 3.8% 상승해 글로벌 금리 상방 기조를 동조함.

외환시장 혼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DXY)가 98.63으로 0.1%대 상승, 안전자산 선호와 긴축 재평가로 달러 강세가 강화됨. 유로/달러는 1.17로 0.1% 하락하며 2주래 저점 부근에 머물고, 달러/엔은 159.61로 0.1% 상승, BOJ의 점진적 긴축 시사에도 달러 강세 우위가 지속됨. 달러/위안은 6.84로 0.2% 오르며 위안 약세가 이어진 반면, 달러/원은 1,472.99로 0.1%

하락해 위험선호 회복과 견조한 국내 성장에 힘입어 소폭 강세를 보임.

유가 ↑ VS. 귀금속 ↓

상품시장에서는 중동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주도 상승, WTI는 배럴당 99.62로 하루 3.4%, 주간 11.1% 급등하며 100달러선 근방에 안착함. 브렌트유도 111.21로 2.8% 오르며 7거래일 연속 상승, 공급 차질 우려를 반영함. 반면 인플레이션·금리 부담 속에 금은 각각 4,596.49, 73.09로 하루 -1.9%, -3.2% 하락, 구리도 5.92로 -1.6% 조정받는 등 귀금속·산업금속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 밀 선물은 649.50으로 4.5% 급등해 11개월래 고점을 경신, 미국 산지 가뭄 심화로 곡물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